

## #첨부

### <유상임 후보자의 ‘자녀 방치’ 의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청문위원들이 파악한 유상임 후보자 아들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는 유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 병원 기록입니다.

#### ■ 중학교 때부터 부모의 관심과 보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했음

2013년 3~4월 서울대학교병원 입원 때 작성된 기록의 ‘병력요약’에 아래 내용 기재

*“중학교 때 \*\*\* problem (\*\*\*,\*\*,\*\*) local \*\*\*병원 방문하여 상담 진행, 환부(후보자)에 대한 원망...”*

위 기록의 ‘과거 입원력’에도 아래 내용 기재

*“중2 강남에 있는 local \*\*\*병원 치료”*

#### ■ 청소년기에 징후가 나타났으며 고3 때 미국 유학 이후 악화

2013년 3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 진단 보고서의 ‘검사 의뢰 사유’에 아래 내용 기재

*“환자 청소년기부터 \*\*\* 행동 보여 local \*\*\*병원에서 치료...고3 때 미국으로 유학 간 후 \*\*\*,\*\*\*,\*\*\*로 추정되는 증상 보여”*

## ■ 이러한 아들의 상태를 후보자는 이미 알고 있었음

위 기록으로 볼 때 부모가 아들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 유학 기간에도 부모가 알았다는 근거들이 위 서울대병원 기록(환자 부모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재)에 적혀 있음

*“2년 전(2011년) 환자가 하숙하는 주인의 아들로부터 부모님에게 이메일이 왔다고 한다. 환자가 \*\*\*,\*\*\*,\*\*\*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부모가 환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고, 환자는 오히려 하숙집 아들이 ‘hard drug user’이고 그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부모님에 의하면 1년 반 전(2011년)부터, 환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조금씩 \*\*\*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1년 전(2012년)부터 환자는 영어 문법 공부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 환부(후보자)에 의하면, 이때부터 환자가 \*\*\* 모습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

## ■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사실도 후보자가 모를 수 없음

2013년 2월 미국에 불법체류 상태로 홀로 있다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2주간 병원에 강제 입원 되었을 때, 후보자가 급히 미국 현지로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했고, 병원으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시켰음에도 ‘마리화나 흡입’과 같은 중요 사실을 당시에, 지금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짐.

마리화나 관련 기록은 2013년 2월 미국 병원과 2013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 모두에서 확인됨.

*"Reportedly ha was using marijuana off and on, for a relatively brief period. Denies using any other drugs."*

- Alameda Health System 2013년 2월 기록 중 '과거 병력'

*"1년 전(2012년)부터 \*\*\* 보이기 시작하였고 \*\*\* 되기 시작. cannabinoid abuse."*

- 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3월 기록 중 '병력 요약'

\* cannabinoid abuse는 마리화나 성분 남용 또는 오용으로 해석

## ■ 종합 판단

- 병원 기록에 따르면 유상임 후보자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의 보호와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했으나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전학하는 정도로 대처함.
- 아들을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감수한 것처럼 포장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
- 심지어 보호가 필요한 아들을 유학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그럴 듯한 포장으로 의심 됨.
- 아들 유학에 대한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에 혼자 체류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어야 함.
- 나아가 후보자는 아들의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음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병원 기록으로 확인됨.
- 2013년 2월 2주 간의 미국 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들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2013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 입원 당시의 기록으로 확인됨.

- 게다가 아들이 미국에서 강제 입원 되어 부모가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데리고 귀국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아들의 마이화나 흡입 인정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보임. (당시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 모두 마리화나 관련 내용을 기록함)

▶ 유상임 후보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들을 방치했다는 점, 이를 가리기 위해 상황에 따라 앞뒤가 안맞는 주장(왜 방치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하고, 불법체류와 위장전입을 추궁할 때는 아들의 상태 때문이었다고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임. 본인이 제출한 중요 병원기록의 내용조차 유불리에 따라 몰랐다고 답변하는 태도 역시 부격적 사유임.

▶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가 사전에 점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실패임이 명백하므로 지명이 철회되어야 함.